

“불확실성 시대, 동북아시아 새로운 질서 구축해야”

한중수교 34주년…2026 평화연대 국제학술회의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중국 베이징 힐튼호텔서 개최
한·중·러·몽·일 학자 30여명 참여…평화 해법 모색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가 한중수교 34주년을 맞아 한국·중국·러시아·몽골·일본 등 5개국 학자들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다.

조선대 동북아연구소는 최근 중국 베이징 힐튼(Hilton) 호텔에서 ‘2026 평화연대 동북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중수교 34주년을 기념해 조선대 동북아연구소와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회,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북경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노재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호혜적 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국제학

술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방향과 실질적인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공자의 ‘삼십이립(三十而立)’을 언급하며 “수교 34년을 맞아 한중 관계가 독자적 협력 및 발전 방안을 찾아 보다 성숙한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한중 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관계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국·러시아·몽골·일본 등 5개국 학자 3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질서 재편과 동북아 평화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국제 질서 변화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불확실성의 시대, 동북아시아 새



조선대 동북아연구소는 최근 중국 베이징 힐튼(Hilton) 호텔에서 ‘2026 평화연대 동북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조선대학교

로운 질서의 구축’ △‘강대국 전략경쟁을 넘어, 한반도 평화공존을 여는 실용 외교’ △‘중국의 한반도 평화담론과 규범 전략’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각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다름’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최근 국제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가 일국 체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특정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다수의 협력과 상호이해를 확대하는 다자적 접근이 동북아 질서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

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체육인 권익보호 ‘앞장’

법률사무소 기원과 업무협약…법률지원 기반 구축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법률지원 기반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수석부회장실에서 법률사무소 기원과 장애체육인 권익 보호 및 법률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과 법률사무소 기원 정

종명 변호사 등이 참석해 장애인체육 현장의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체육회 각종 규정과 제도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개선 자문을 비롯해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상담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수석부회장실에서 법률사무소 기원과 장애체육인 권익 보호 및 법률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사무소 기원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체육인 법률지원에 대한 든든한 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률사무소 기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장애인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광주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범죄 예방

‘투게더 폴 데이’ 학교·학생과 소통
등곳길 캠페인·골든벨 퀴즈 등 진행

광주경찰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 학생들과 소통하며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는 ‘투게더 폴 데이(Together Pol Day)’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투게더 폴 데이는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학생이 함께하는 날’로,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업무인 범죄예방교육과 학생 면담, 경찰·학교 간 간담회, 예방 캠페인 등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나 골든벨 퀴즈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광주권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63개 학교의 신청을 접수했다. 전체 329개 학교 가운데 19.1%가 참여를 희망했으며, 학교별 특성과 학교전담경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11개 학교를 선정했다.

지난 8월까지 선정 학교 가운데 3개 학교에서 프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신용중학교에서 투게더 폴 데이 행사가 열린 모습.

사진제공=광주경찰청

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최근 네 번째 학교인 북구 신용중학교에서 투게더 폴 데이가 열렸다.

신용중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등곳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관계자 간담회와 전교생 대상 범죄예방교육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 골든벨 퀴즈대회’도 마련됐다. 골든벨에서는 학교폭력뿐 아니라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사이버도박과 사이버폭력,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다뤘다.

참여 학생들은 경찰관과 함께 직접 문제를 풀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경찰청은 앞으로 남은 선정 학교에서도 학교별 특성에 맞는 투게더 폴 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학생이 함께 소통하는 예방활동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투게더 폴 데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양농협, 이민여성농업인 농촌 정착 지원

1대 1 맞춤 농업교육 멘토-멘티 결연

광양농협은 최근 회의실에서 이민여성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이민여성농업인 1대 1 맞춤형 농업교육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연식에는 전문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멘토 11명과 결혼이민여성농업인 멘티 11명이 참석했다.

멘토는 자신의 영농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멘티의 농업활동을 돕고 멘티는 영농에 대한 현장 경험을 배우며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광양농협은 이번 멘토, 멘티 결연식을 계기로 맞춤형 교육은 물론 멘토, 멘티 간 교류 활성화와 영농기술 등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허순구 농협조합장은 “멘토 선배 농업인들의 영농 경험은 물론 농촌의 생활문화와 농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알려면서 멘티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광양농협은 최근 회의실에서 이민여성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이민여성농업인 1대 1 맞춤형 농업교육 멘토, 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양농협



광산구가족센터는 최근 나주 중흥골드스파(위터락)에서 이주배경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체험활동의 일환인 ‘여름나기 물놀이 공동체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산구가족센터

광산구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여름나기 물놀이

청소년 대상 사회성·협동심 향상 공동체 활동

광산구가족센터는 최근 나주 중흥골드스파(위터락)에서 이주배경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체험활동의 일환인 ‘여름나기 물놀이 공동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체 활동은 기아와 초록우산이 지원하는 ‘도담도담 공동체 활동’의 하나로, 이주배경 및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성과 협동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물놀이 시설과 체험활동을 제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안전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협력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친구들과 같이 물놀이를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며 “평소 놀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공동체활동으로 신나게 놀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장은미 센터장은 “이번 공동체활동은 단순한 물놀이 체험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